



# 정교회주보

제2489호

2024.09.08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시리아의 성 게오르기오스 수도원(사진)은 흠스에서 65km 떨어진 '그리스도교 계곡'으로 알려진 곳에 5세기경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노스 1세가 세웠다. 수 세기 동안 파괴와 복원이 반복되었으며, 지금의 수도원은 1857년에 재건되었다. 내전으로 수도원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2014년 반군에 납치된 두 분의 대주교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십자가 현양 축일 전 주일 성모 탄생 축일

(제2조 • 조과복음 / 루가 1,39~49; 56)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봉)303
  - 복음경 : 요한 3,13~17 ..... 190
  - 성모 탄생 축일 성모송 ..... 187
  - " 영성체성혈송 ..... 18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을 찢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중심적인 행위입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빵을 찢고,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분은 포도주를 붓고, 그것을 주십니다.(마태오 26,26-29)

예수님이 자신을 내주셨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찢어진 빵으로, 부어진 포도주로 내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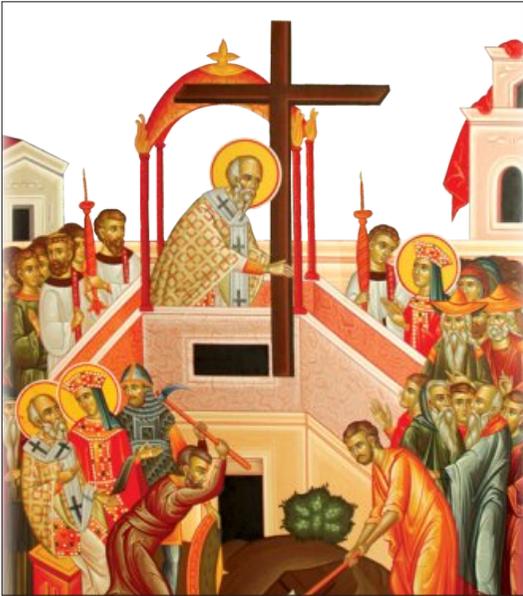
그분은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주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희생되십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희생 안에서 나를 당신과 연합시켜 주십시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 십자가의 의미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주**님께서는 율법 학자와 바리새이파 사람들 그리고 대사제들과 원로들 등 유다의 지도자들 고발로 빌라도에 의하여 순교의 길을 가게 되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큰 죄인같이 벌을 받아 그 시대에 가장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의 인성은 무서운 아픔을 겪게 되어 육신은 고통에 시달렸다. 주님이 겪으신 그런 큰 고통은 우리의 크나큰 죄 때문이다.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많은 자식을 위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감당하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신성으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결과적으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주님의 육신이 무덤에 묻히었을 때 그의 신성과 인간의 영혼은 지하에 내려가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렇게 그의 구원의 일을

완성한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죽은 이들이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요한 5,28) 생명의 주관자께서는 세상에서 뜻을 다 이루신 후에 그가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창조주에게는 죽음이 감히 대항할 수 없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삼 일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큰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정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더욱 빛나게 기념하고 있으며,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기념하고 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과거에 십자가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하고, 정결의 몸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로 불 뱀을 보내시어 죽음을 맞게 하신 하느님이시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들에게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세우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민수기 21장) 하신 예언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 것이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 나타해진 믿음의 자세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3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 기도의 중요성

인간의 삶에서 기도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쉽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 사람의 영혼에 마치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같아서 잘려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마태오 7,19).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는 밤입니다. 그 시간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삼라만상(森羅萬象: 온갖 사물들)이 침묵하는 밤의 고요 속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 속에 훨씬 더 풍부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열렬히 기도하는 사람을 거스르는 유혹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은혜도 배가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영적인 도움을 줍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보통 '기도는 복음의 가르침이 낳은 딸이며,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세르비아의 파블로스 총대주교(1914-2009)



## 어느 여배우의 조언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1929-1993)은 그녀가 지닌 아름다움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할 말을 하십시오.

아름다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과 당신의 음식을 나누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칼을 가지려면, 당신의 아이로 하여금 날마다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돌보고, 활력을 되찾고, 흥미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에게는 손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9월 14일(토)

십자가 현양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우린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 대교구 주일학교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zoom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zoom 링크는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알림

### ■ 심포지엄 개최 안내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NCCK) 공동 주관으로 AI(인공지능)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날짜: 9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주제: AI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 봉사자인가, 지배자인가?
- 연사: 정교회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라브레오티키 대교구), 천주교 한창현 신부, 개신교 신익상 목사

### ■ 서울 성당 매주일 프로그램

서울 성당에서 매주일 점심식사 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달 첫째주: 장년회(대주교님), 신데즈모스(자체), 예비신자(신부님)

둘째주: 구복회(신부님), 신데즈모스 및 예비신자(대주교님)

셋째주: 운영위원회(신부님), 신데즈모스 및 예비신자(대주교님)

넷째주: 구복회(대주교님), 신데즈모스 및 예비신자(자체)

영성의 샘터

## 찬양과 기도의 힘

어느 사부가 말했다.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공동으로 예배드리면서, 입과 마음의 문을 닫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닮은 것과 같다. 더러운 악령은 교회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찬양을 들으면 견딜 수가 없기에 인간의 생각을 찬양과 기도에서 흠뜨려 놓으려 안간힘을 쓴다.”

